

열혈장시꾼

장르 액션무협

작가 박인권

회차 105화



01 로그라인



"장사에는 마법이 없다. 다만 내가 마귀가 될 뿐이다."

달은 천만번 이지러져도 그 모습 그대로이고...
장사꾼은 천만번 넘어져도 오늘 장터로 떠난다.
그것이 장사꾼의 곤조다.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기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상의 이야기

02 시놉시스

하류, 장사의 귀신

차팔이 하류는 보통내기 장사꾼이 아니다. 고객들의 차에 부적을 붙이고 고객을 위해 매번 108배를 하고 목숨까지 걸어가며 차를 파는 그는 그야말로 불타는 세일즈맨이다.

늙은 꼰대에게 사랑하는 여자 다해를 빼앗기다

하루는 나이 들고 무례한 남자가 '다해 ' 라는 여자를 위해 결혼 선물로 차를 사러 왔다고 한다. 알고 보니 남자가 말한 다해는 하류의 여자친구였다! 하류는 다해와 그녀의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듣게 된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강사장에게 시집 가는 대가로 그가 빚을 갚아주겠다고 한 것.



02 시놉시스

2년 안에 5억 벌어 애인을 되찾겠다!

꼭지가 확 돌아 다해를 찾기 위해 환장하게 된 하류. 명함을 하루 50장 뿌리고, 구매력을 분석하고 발톱이 빠질 정도로 발로 뛴다. 그렇게 해서 돈은 많이 벌었으나 5억 앞에서는 턱없이 작아지는 액수다.

판매의 신, "매왕"에게 장사의 기술을 캐낼 수 있을까?

한편 매왕은 7년 연속 우수한 판매 사원이다. 놀랍게도 그는 77세의 늙은이. 개량한복을 입고 짚신을 신는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다. 하류는 매왕에게 장사의 기술을 알려 달라 간곡히 부탁하나 쉽지 않은데



하류

일명 차팔이

너무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장사, 영업에 목숨 걸고 임하는 세일즈 맨. 일명 차팔이다. 여자친구인 다해가 빚을 갚기 위해 강사장이란 늙 은이랑 결혼하게 됐고 그녀를 되찾기 위해 더더욱 장사에 미치게 된 다. 그의 목표는 2년 안에 5억을 벌어 빚을 갚고 다해를 되찾는 것



다 해

하류의 여자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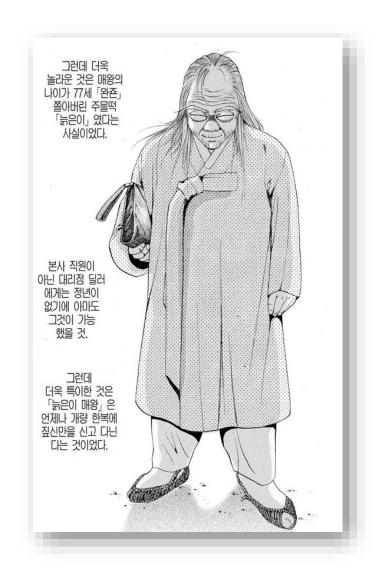
아버지 사업이 망해 집에 부도가 나고 그 빚을 갚아줄 인물로 늙은 꼰대인 강사장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된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등 처음에는 결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나 얼마 후 돈만 있으면 나름 편하게 결혼 생활 할수 있다고 하류에게 말하는데... 그녀의 본심은 무엇일까?



매왕

7년 연속 우수한 판매 세일즈맨

7년 연속 우수한 판매 직원으로 뽑힌 세일즈맨. 화려한 이력과는 어울리지 않게 개량한복을 입고 짚신을 신는 77세의 할아버지다. 하류가 끈질기게 매왕의 장사기술을 캐내려고 하나 매왕은 장사꾼에게 장사의 기술을 까발리라는 것은 무사의 칼을 뺏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거절한다. 하지만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 알려주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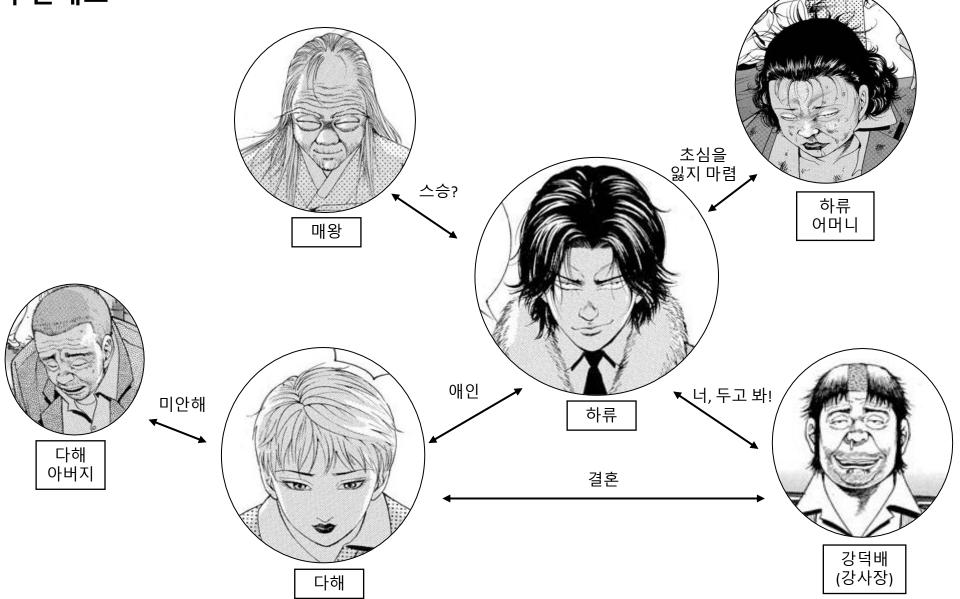
강덕배

강사장

돈을 써 하류에게서 다해를 빼앗아 간 늙은 꼰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험하고 무례한 말투를 쓴다.



04 캐릭터 관계도



05 킬링 포인트

장사에 대한 깊은 철학

- "팔리기 전에 팔아라"
- "꽃을 쥔 손으로 돈을 주울 수 없다"
- "장사가 아닌 척해야 장사가 된다"
- "장사꾼이 '인간 ' 으로 보일 때 돈은 그때부터 줍는 거다."

등등 장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끔 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

흔치 않은, 장사에 미친 주인공

발톱 빠지도록 겁나게 영업하러 다니는 주인공, 하류. 돈도 돈이지만 장사에 목숨 거는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독특하다.

목표는 선명하게, 과정은 열렬하게

주인공 하류의 목표는 단 하나. 연인이었던 다해를 데려오는 것. 이를 위해 필요한 건 5억. 2년 안에 갚겠다는 열망으로 불타오른다. 그 과정에서 혹독한 장사꾼의 길 을 걷는 하류.

